

도시재생 정책 동향

Urban Regeneration Trends



기사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무거운 빈집 고민, '농촌빈집은행'에 내려놓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 2025. 6.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덕·청송군, 특별재생으로 활력 되찾는다

국토교통부 | 2025. 6. 12.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6.2~6.9, 서면)를 거쳐 '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2곳)하였다.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5월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남 도시재생 소식

충남 빈집 활용 도시재생 주력 그 배경과 과제

충남도 | 2025. 6. 9.

충남도가 관내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에 주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지난달 13~14일 이틀간 충남경제진흥원 내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및 도시재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 심화과정의 바로 그것이다.

천안시, 오룡지구 골목상권발전소 건립 착수...로컬브랜드 지원

천안시 | 2025. 6. 9.

충남 천안시는 9일 로컬브랜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룡지구 골목상권발전소' 건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로컬브랜드 육성과 청년 창업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푸드 메이커와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목표로 체험형 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천안시, 중간집 입주식...입주자 건강회복 지원

천안시 | 2025. 6. 9.

충남 천안시는 9일 중간집(케어안심주택) 입주식을 열고 첫 입주자의 건강회복을 기원했다. 시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뒤 통원 치료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까지 단기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주공간은 봉명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남성 2개실, 여성 2개실로 최대 4명이 생활할 수 있다.

2025년 빈집, 빈점포 활성화 사업 참여자 모집

홍성군 | 2025. 6. 16.

- (모집기간) : 2025.06.16(월) ~ 27(금)
- (참여대상) :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 및 창업공간 정비를 준비하는 창업자
- (교육내용) : 창업준비 공간에서 진행하는 인테리어 교육 프로그램

